

바다 건너 지역이다 보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제주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가? “제주지역 첫 성결교회인 우리 제주제일교회는 1951년 한국전쟁 와중에 탄생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이겨가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증복음의 가치를 내걸고 성결교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미 장로교에서 파송한 이기풍 목사가 1908년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영향으로 장로교가 득세한 제주에서, 늦었지만 성결의 깃발을 힘차게 들었던 것입니다. 제주사람들에게 생소한 성결교회였기에,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특별히 이산웅 목사님 시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창립 57주년을 맞는 제주제일교회는 시무장로 열 분과 협동장로 세 분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학생, 청년 500여 명과 장년성도 1,000여 명, 총 1,500여 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지난번엔 부활달걀을 각급 관공서에 3만 개나 전달하는 거룩한 극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앞에 열정적인 저들을 보면서 저의 향후 목회 가능성 또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제주시민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5월 초에 교단 축구선교연합회(대표회장 신 청 목사)가 개최하는 전국대회를 초청하신 교회로 유명해졌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초청동기와 지원내역, 그리고 전국 성결교회를 향한 환영사를 부탁드린다.

“2008년은 제주선교 100주년의 해이자 성결교회선교 5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월 11일(주일)부터 12일(월)은 ‘Holy Jeju, 전국성결교회축구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예선을 거친 19개 팀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축구뿐 아니라 전야제 때는 제주시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제주제일교회는 참여하는 본선팀을 위해 숙박, 차량, 식사 등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1년 전부터 마하나임 축구사역팀(팀장 김성용 장로)이 매주 모여 기도회를 갖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번 행사가 55만 제주시민들에게 성결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선의 섬김을 통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느끼고 가실 것입니다. 축구문화 선교와 함께 어우러진 복음의 감격을 담고 가실 여러분들을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3년째로 접어들었다. 이제 교회를 파악하고 새로운 목회계획을 세워 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

떤 목표를 보고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서히 구체적인 목표를 가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푸른 목장의 꿈’이라는 목표 아래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핵심가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장교회입니다. 57년의 전통교회인지라 구조상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목장교회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목장리더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서히 목장에서 나눔이 시작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역장교회입니다. 23개의 사역장을 동아리사역 5개, 예배사역 9개, 선교사역 3개, 문화사역 6개로 만들어, 각각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개발해 누구든 참여해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팀장훈련으로 건강한 사역장을 통해 성도들을 세워가며 관계전도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제자훈련교회입니다. 양육과정을 체계화시켜 새가족과정(5주), 기초 성경공부과정(6개월), 구약 파노라마(6개월), 신약 파노라마(6개월), 구약 인물편(6개월), 신약 인물편(6개월) 등 약 3년 과정으로 모두가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자원 및 선택으로 제자훈련과정을 밟아 평신도 리더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는 각기관교회입니다. 또래모임으로 이루어진 각 기관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나아가 선교하는 모임으로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장과 사역의 균형입니다. 저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것을 받아들여 이되 옛것을 무조건 파하지 않는 균형 말입니다.”

5월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울증을 특집으로 다룬다. 혹 이와 관련한 목회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더군요. 천천히 멀리 보면서, 그리고 곁에 가지는 않더라도 끝없이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또래집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제일교회 약사

1951년 5월 6일 1.4후퇴 시 제주도에 피난 온 성결교회 성도들이 구 노동의원(건입동) 자리에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초대교역자 오태상 목사). 1957년 8월에 건입동 1263번지에 대지 57평, 건평 40평을 개축하여 9월 이전했으며, 1962년 8월 지교회로 서귀포 서귀리에 서귀포성결교회를 개척했다. 1978년 12월 12일 제주시 일도2동 1041-4번지에 대지 157평, 건평 33평의 교회로 이전, 입주예배를 드렸고, 1986년 3월 본당을 70여 평 건축하여 입당예배를 드렸다. 1989년 2월 제주시에 지교회로 에덴교회를 개척했으며, 1990년 3월 지교회로 신제주에 친구교회를 개척해 예배를 드렸다. 2000년 5월 부지 약 2,500평에 연건평 530평의 새성전을 봉헌했다. 2006년 2월 현 최일만 목사가 부임하면서 축복의 땅 제주도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